

4. 온두라스의 정치·경제 동향

가. 일반개황

일 반	위 치	중미, 카리브연안
	면 적	113천 km ² (한반도의 1/2)
	기 후	열대(해안), 온대(내륙)
	인 구	7.5백만 명(2009)
	수 도	Tegucigalpa(92만 명)
	민 족	메스티조(90%), 원주민(7%), 흑인(2%), 백인(1%)
	언 어	스페인어, 영어
정 치	종 교	가톨릭(97%), 기독교(3%)
	독 립 일	1821. 9. 15(스페인)
	정 부 형 태	대통령중심제(단일공화제)
	국 가 원 수	Ricardo Maduro Joest 대통령
	의 회	단원제(128석)
	주 요 정 당	자유당(PL), 국민당(PN)
	국제기구가입	UN, IMF, IBRD, IDB, IFC, IDA, OAS, ICAO, CACM, WTO 등
경 제	G D P	144억 달러(2009)
	1인당 GDP	1,920달러(2009)
	화폐단위	Lempira(La)
	회계연도	1. 1 ~ 12. 31
	산업구조(2008)	농업 13.4%, 제조업 28.2%, 서비스업 58.5%
	주요수출품	커피, 바나나, 새우 및 가재, 금
	주요수입품	원자재, 기계 및 운수장비, 식료품
제	주요부존자원	금, 은, 납, 아연
	경제적강점	미국과 FTA 체결
	경제적약점	사회간접자본 미비

나. 약사

- 1821년 9월 15일 : 독립 선언
- 1822년 : 멕시코와 합병
- 1824년 : 중미연방의 일원으로 멕시코로부터 독립
- 1839년 : 중미연방으로부터 독립
- 1955년 : 1824~1954년 동안 정권이 116차례나 교체되는 등 빈번한 정권교체 지속
- 1969년 : 엘살바도르와의 축구전쟁 발발
- 1971년 : 1932년 이래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직선에서 라몬 에르네스토 꾸르스(Ramon Ernesto Cruz)가 대통령으로 당선
- 1972년 : 로페스 아레야노(Lopez Arellano) 장군 쿠데타로 집권
- 1994년 : 자유당의 까를로스 로베르토 레이나(Carlos Roberto Reina) 대통령 취임
- 1998년 : 자유당의 까를로스 로베르토 플로레스(Carlos Roberto Flores Fancesse) 대통령 취임
- 1998년 10월 : 허리케인 미치(Mitch) 피해로 5,000명 이상 사망, 150만 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 약 30억 달러
- 2002년 : 국민당의 리카르도 마두로(Ricardo Maduro) 대통령 취임
- 2006년 : 자유당의 마누엘 젤라야(Manuel Zelaya) 대통령 취임

- 2009년 6월 : 쿠데타 발생으로 젤라야 대통령 축출
- 2010년 1월 : 국민당의 포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 대통령 취임

다.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제 성 장 륜	6.6	6.3	4.2	-2.1	3.0
재 정 수 지 / G D P	-1.1	-2.9	-2.4	-6.1	-4.8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5.3	8.9	10.8	3.0	8.0

□ 경제성장세 회복국면 진입

- 온두라스 경제는 2004년 HIPC(고채무빈국) 프로그램의 완결시점에 도달한 이후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 마킬라 산업 및 관광업 호조,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6%대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8년 이후 경제정상세가 급속히 둔화되어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2.1%)을 기록함.
-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미 수출과 FDI 유입이 급감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도 줄어들면서 민간소비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09년 6월 군부 쿠데타 이후 대외원조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

- 금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중단되었던 국제기구의 대외원조가 재개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과 제2위 수출국인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로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 경제성장률은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규모 대폭 증가

- 온두라스는 HIPC와 MDRI 채무구체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감소, 세원확대를 위한 조세개혁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개선 추세를 보여 왔음.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켈리야 정부 시절의 공무원 임금 인상(2009년 세수의 90%가 공무원 임금 지급에 사용됨) 그리고 이자율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2009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6.1% 수준으로 급증함.
- 금년에는 4월에 전화, 전기, 자동차, 주류, 담배, 부동산임대료 등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향후 세수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 소폭 상승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해 상승세를 보여 왔던 물가가 2009년에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3%로 대폭 하락함.

— 금년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렘피라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렘피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8.89렘피라로 고정되었고, 이로 인해 렘피라화는 약 14% 고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IMF는 온두라스 정부에게 렘피라화를 매년 5%씩 평가절하할 것을 권고하였음.

(2) 국제경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404	-1,116	-1,800	-578	-900
경상수지/GDP	-3.7	-9.0	-12.9	-4.0	-6.0
상 품 수 지	-2,027	-3,104	-4,052	-2,591	-2,937
수 출	5,277	5,784	6,458	5,196	5,906
수 입	-7,303	-8,888	-10,509	-7,788	-8,844
외 환 보 유 액	2,642	2,546	2,492	2,127	2,577
총 외 채 잔 액	4,184	3,260	3,214	3,231	4,339
총외채/GDP	38.3	26.3	23.0	22.4	28.7
D. S. R.	6.8	6.1	4.6	4.4	4.0

□ 국제수지 불균형 확대 추세

—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 이후 2008년까지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렘피라화의 고평가와 국제원자재 가

격 상승 그리고 마킬라 산업을 위한 자본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경상이전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됨.

· 상품수지는 2006년 2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40억 달러로 2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같은 기간 동안 4억 달러(GDP의 -3.7%)에서 18억 달러(GDP의 -12.9%)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미국의 수요 감소, 농작물 작황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도 전년 대비 25% 가까이 축소되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26억 달러와 5.8억 달러(GDP의 -4%)로 축소됨.

— 금년 들어 수출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폭이 29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9억 달러(GDP의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세로 전환

— 온두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섬유, 의류 등 마킬라 기업의 투자 확대, 통신업과 제조업(시멘트 공장)에 대한 현지공장 설립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DR-CAFTA가 발효된 2006년에는 2002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7~08년에도 각각 8.2억 달러와 8.8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에는 쿠데타 발생이후 정국혼란이 지속되면서 FDI 유입액이 4.8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금년 들어 정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온두라스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FDI 유입액은 2.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였으며, 금년 전체로는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해외근로자 송금액 최초로 감소 기록

- 해외근로자 송금은 수출과 더불어 온두라스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서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민간소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2001년 4.6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대인 2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4.8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음.
- 금년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더불어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미-EU 자유무역협정 타결

- 금년 5월 중미-EU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대 EU 수출 증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라. 정치·사회동향

□ 자유당(PL)의 켈라야 대통령 쿠데타 발생 이후 망명

- 2005년 11월 대선에서 자유당(PL)의 마누엘 켈라야(Manuel Zelaya) 후보가 승리하여 200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당(PL)이 총 128석 중 62석을 차지하여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함.
- 켈라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08년에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ALBA에 가입하였음. 이후 켈라야 대통령은 좌파 동맹국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성공한 ‘제한의회 설립→국민투표 실시→개헌(연임 허용)’ 과정을 통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였으나, 군부, 의회, 대법원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음.
- 켈라야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하였으나, 국민투표 당일(6월 28일) 새벽 온두라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켈라야 대통령을 체포하고 코스타리카로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3개월 뒤인 9월 21일 켈라야 대통령은 비밀리에 귀국하여 수도인 테구시갈파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 비호를 요청하여 권좌 복귀를 꾀하였음. 켈라야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국 불안 양상이 지속되었으나, 10월 19일 양측이 주요 이슈인 켈라야 대통령의 복위문제를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고, 11월 29일 대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혼란 종식의 전기를 마련함.

□ 국민당(PL)의 로보 대통령 취임

- 젤라야 대통령측의 일방적인 합의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대선이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국민당(PN)의 보수성향 농업 사업가 출신 포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 후보가 52%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 금년 1월 27일 로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젤라야 전임 대통령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망명함으로써 온두라스 사태가 일단락 됨.

□ 국제관계 정상화 노력 중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로보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및 중미통합은행(CABEI)도 동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재개함.
- 그러나 남미국가연합(Unasur) 국가 중 콜롬비아와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여전히 온두라스 신정부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있고,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중 니카라과도 로보 대통령을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난 4월 9일 로보 대통령이 니카라과를 방문하여 오르떼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음. 이를 두고 일부는 오르떼가 정부가 로보 정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실업,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구의 약 25%가 1일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인구의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50%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국민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8%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소득의 3.4%를 점하고 있는 데 그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함.

-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젤라야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OECD는 2007년 6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 6등급('08. 6) → 6등급('09. 7)
- Moody's : B2('03. 7)
- S&P : B('09. 9)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개별심사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

□ HIPC 완결시점(Completion Point) 도달 이후 외채규모 감소

-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외채위기로 1989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

기도 하였으나, 1991~92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 파리클럽 및 주채권국인 미국의 지원으로 채무지급 중단 사태에서는 벗어남.

- 2000년에는 Enhanced HIPC 수혜 대상국가로 선정되었으나, 재정 적자 확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IMF의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프로그램 및 채무구제가 잠정 중단된 바 있음,
- 그러나 2004년 2월 온두라스에 대한 IMF의 PRGF 프로그램이 재개되었고, 금년 4월에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향후 20년 간 9억 달러(NPV 기준으로 5억 5,600만 달러)를 탕감 받게 됨.
- 이에 따라 외채규모는 2009년 말 현재 GDP의 22%인 32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D.S.R.도 4.4%에 불과함.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 외환보유액은 해외원조, HIPC 채무구제에 의한 이자비용 경감, FDI 유입 증가, 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5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음.
- 2009년에는 정국불안과 경기침체로 외자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21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 말에는 다시 2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바. 향후 전망

- 온두라스는 마나나와 커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통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적인 농업국가임. 1990년대 들어 마킬라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보였고, 최근에는 HIPC 채무탕감 수혜와 DR-CAFTA 발효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

- 금년 1월 로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국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 미국 등 다수 국가가 로보 정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아직 로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온두라스가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외원조가 재개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